

보도시점 (지 면) 10.14.(월) 조간
(인터넷) 10.13.(일) 09:00

중기부-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업-대학 협력 기반 마련

- 중기부·교육부 간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순천대 세방화(글로벌)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 참석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)와 함께 지역특화산업과 지역 인력 육성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세방화(글로벌)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.

인구감소 및 수도권·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,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두 혁신 주체가 일자리·기술개발·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중기부와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,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(이하 '라이즈')*를 긴밀히 연계하여,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한다. 양 부처간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**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**,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체계

첫째, 지역 주력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. 중기부 '레전드 50*'의 자금·판로·제조혁신 등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과 교육부 라이즈의 인력양성 체계를 연계하여, 맞춤형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한다.

둘째, 지역 혁신 선도기업이 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와 협력 연구개발(R&D)을 수행하는 '지역혁신선도기업 연구개발(R&D)'을 추진하여, 기술개발 분야 지자체-중소기업-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세 번째, 지역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를 라이즈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. 중기부는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체계를 구축하고, 교육부는 대학의 현장 수요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양성을 지원한다.

아울러, 대학을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'창업중심대학'과 라이즈 연계 모델을 발굴하여, 대학 내 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.

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"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,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해결해야 한다."라고 말하며, "이번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국제화(글로벌화)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."라고 밝혔다. 아울러, "중앙정부·지방정부·지역대학 등 관련기관이 하나의 팀(원팀)이 되어 지역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"라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세방화(글로벌)대학 강소지역기업 비전 선포식에 앞서,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(주)삼우에코를 방문하여 강소지역기업, 레전드 50+ 참여기업,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.

간담회를 통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, 창업기업(스타트업)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중소기업이 겪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. 오영주 장관은 "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상규 (044-204-7480)
		담당자	사무관	민준현 (044-204-7581)
	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성하 (044-203-6820)
		담당자	사무관	서우성 (044-203-6239)
		담당자	사무관	신태연 (044-203-623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